

「도서관과 대학생」

徐 燾 珏

〈도서관의 使命〉

무릇 도서관은 사회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기관이다. 도서관의 역사는 고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이 중세에까지 내려 오면서도 아직 공개 도서관에는 미치지 못하고 문헌의 보존이 위주가 되었다. 르네상스의 본 고장이었던 이탈리아에서는 피난민들이 Constantinople에서 가져 온 서적에 의하여 文庫가 설립되었고, Venice의 학자 Niccolo Niccoli는 일생동안 수집한 책들을 모아 Venice시에 기증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근대 도서관의 嚆矢라고 한다.

한편 14세기부터 많은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하자 寺院文庫를 모방한 대학 부속도서관들이 건립됨으로써 근대적 도서관의 기초를 이룬다. 끝내 최근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은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는 固疾的 傳統 때문에 그 발달이 阻害되고 만다.

이와 같이 문헌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하던 도서관 제도로부터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도서관으로 발전을 이룩한 계기는 극히 최근의 미국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미국은 그 초기에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였던 관계로 책을 구한다는 것이야말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일찍부터 민간 조직이 결성되어 공동으로 책을 구입하여 비치해 놓는 일이 많았다. B. Franklin은

※ 필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법전공,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그가 가입하고 있는 Janto Society 에 건의하여 회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서를 한데 모우거나 혹은 출자하여 회원에게 자유로 열람시키도록 하였다. 이것이 곧 오늘날 미국의 도서관 발달의 첫 단계라고 한다. 미국 국민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던 도서관 운동은 심지어 독립전쟁 시기에도 꾸준히 계속되었으나, 여기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한 것은 Carnegie 와 같은 富豪들의 막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신적 아파트를 의미하는 도서관의 사명은 분명히 사회 공중에 기여하는 봉사에 있다면 그것은 간접 봉사와 직접 봉사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즉 간접 봉사란 도서의 선택·구입·受贈·등록·분류 및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하지만, 직접 봉사라고 하면 관내 열람, 관외 대출, 도서관 상호 대차, 참고 업무(reference work), 마이크로 複製 서비스, 순회 문고 운영, 각종 행사(도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의 주최와 권장 등 일련의 봉사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도서관은 과거의 보존 중심적인 소극적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의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경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직접 봉사는 도서관 봉사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단골 손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誠實하게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일 것이다. 詩人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大學이다」라고 喝破하기도 하지만, 조직화된 시설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은 대학이 그 종착역인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대학생 활에서 배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대학을 지성의 殿堂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중추 계층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기른다는 점에서 볼 때에 대학생이면 으레히 도서관의 단골손님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중추 계층이 될 수 있는 자질이란 비단 전문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보다 폭 넓은 인간성의 함양에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딱딱한 정신적 아파트를 뛰쳐

나와 자연 속에 뛰어 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져야 할 터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대학생에게 지성의 旗手로서, 사회의 엘리트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은 대학을 나온 뒤 4년 동안 전공 분야에서 연마한 지식들을 유용하게 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닐까, 아니 적어도 자기 전공 분야에 관한 아무런 지식도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간판을 위하여 대학에 들어 왔다는 불명예를 감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문 서적을 集積하고 있는 도서관의 문을 자주 드나 들어야 할 이 유가 있다.

상상해 보라. 삐죽 삐죽 티어 나온 책들을 옆에 끼고 대학 캠퍼스를 지나 는 학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가. 차라리 의복이 깔끔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텃수룩한 머리에 단정한 교복에다 한아름의 전문 서적을 옆구리에 안은 대학생들! 이 학생이 도서관에서 독서할 때에는 一絲不亂의 정신으로 들여 파고 일단 도서관의 문을 나와서는 자연을 즐길 줄 아는 분별 있는 대학생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학생 부속 도서관만큼은 전문 서적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시설을 가져야 하는 當爲가 있다. 선진 여러 나라의 대학 도서관의 그 방대한 장서를 생각할 때에 하루 바삐 우리 대학 도서관들의 장서가 불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생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목적 의식이 없는 것 같다. 평상시에는 텅텅 비던 좌석이 시험 때만 되면 문전 성시가 된다면 곤란하다. 또 집에는 공부할 방은 없는데 공부는 하여야 겠고 할 수 없이 도서관을 찾는다면 대학생과 도서관의 관계는 너무나 삭막하다. 결론에 있어서 공부를 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대학 생활 속의 도서관 이용이라는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의 멋이 흐려지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대학에 들어 온 이상 멋있고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도서관의 단골 손님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풍조가 생겨야 겠다. 또 대학의 긍지와 멋과 결부된 대학 도서관이라면 그 시설면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역시 멋드러지면 더욱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이상이지 현실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학 도서관이 지향

할 이정표이긴 하다.

<도서관 운동>

도서관이 그 기능에 있어서 폐쇄성으로 부터 공개성으로 변천함에 따라 그 사명도 간접 봉사보다도 직접 봉사가 강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도서관의 대중성과 일반성과 관련되며 사회에서 도서관의 업무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결과로 된다. 끝내 도서관의 현대적 사명을 다 하려면 사회의 독서층을 두껍게 하는 데에 선도적 임무를 맡아야 한다. 사회의 독서층이 두터워지면 출판계가 도서관 운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여기에 일반 대중의 독서열이 상승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병행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발전과 건설이 학문의 뒷받침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뜻 있는 인사들이 지식의 寶庫로서 도서관의 사명을 널리 실천하도록 참여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는 남북전쟁 중에서도 도서의 수집을 위한 도서관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Carnegie 와 같은 富豪들이 경제적 뒷받침을 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암시를 준다.

요컨대 학자를 비롯한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중심 세력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에, 도서관의 시설 개선과 아울러 司書要員의 질적 향상, 좋은 대우, 많은 장서 구입을 위하여 국가적 뒷받침은 물론이고 사회 각계의 인사들이 도서관 운동에 적극 관여하여야 하겠다. 오늘날 지방에서 연면히 보도되고 있는 마을 문고는 도서관 운동의 앞날에 밝은 빛을 던져주고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서관 운동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믿는다. 도서관의 사회성을 긍정한다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마음 가짐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회의 공중도덕과 직결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 대학생들이 앞장 서서 실천하여야 할 터이다.